

'마이웨이' 유혜리, 이근희와 이혼 언급... "인생 오점 아냐"

등록 2021.08.16 09:59:42



[서울=뉴스시스] TV조선 '스타다큐 마이웨이' 방송 캡처. 2021.08.16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 김지은 기자 = 배우 유혜리가 이근희와의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.

15일 방송된 TV조선 '스타다큐 마이웨이'에서는 유혜리가 홍여진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.

유혜리 아버지는 결혼식 당일까지 결혼을 반대했었다고. 유혜리는 "처음에 1년 반 살고 이혼하지 않았나"라고 말문을 열었다. 이어 "아버지가 너무 신경 쓰셨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(결혼식 날) 손도 못 잡아줬다. 작은아버지가 잡아주셨는데 나중에 막내가 '언니 아빠가 집에서 술을 드셔'라면서 고개를 숙이고 막 힘들어한다고 하더라. 그때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. 성급했다, 신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"고 돌이켰다.

유혜리는 "이혼이 상처는 아니다.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좋아서 뭘 사줬다. 보통 집안에서는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럴 줄 알았다, 괜찮아 이런 반응이었다. 아버지는 올바르게 본 거다. 이래서 반대하셨구나 이런 게 있지 않나"고 말했다.

홍여진 역시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. 홍여진은 "이혼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날 때도 힘들었다. 암 걸렸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났었는데 암 걸렸다고 하니까 헤어지자고 하더라"며 "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다. 내가 편안해지려면 노후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꼭 맞는 코르셋을 벗은 기분으로 해방감을 느꼈다. 남자한테 기댈 게 아니라 내가 서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"고 전했다.

유혜리는 "잘 겪었고 성숙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해야 하나. 그렇게 표현하지 그것이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나에게 장애도 되지 않는다.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지만 선택이니까. 이제는 결혼이 뭔지 알고, 분별할 수 있는 나이다.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"고 덧붙였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